

시민과 함께 만든 순천 세계유산축전 성료

축제 기간 한달 간 30만명 방문
오전광장 세계유산 향유 표현
순천갯벌서 하룻밤 콘텐츠 인기
“내년에도 순천 가치 느낄 것”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이 3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오전광장, 선암사, 순천갯벌에서 열렸다.

이번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오전광장을 세계유산 향유의 공간으로 표현해 시민들이 문화 향유와 더불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누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단순하게 선암사, 순천만 습지라는 관광지로 인식된 유산을 세계인이 함께 찾고 공유하는 유산으로 발전시킬 전환점으로 만들었다.

이번 축전의 가장 큰 이슈는 기념식이었다. 기념식은 오전광장에서 순천이 가진 두 유산의 의미를 하나로 사람과 연결시켰다. 세계유산 선암사와 순천갯벌은 유산 본연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기념식에 담아냈다.

축전의 출발은 시민들이 먼저 찾아가는 축전의 의미로 시민 500여명과 함께 랍사르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야간달빛기행, 새벽무진기행이 진행됐고, 선암사에서는 암자투어를 통해 선암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혔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세계유산 순천갯벌에서 진행된 하룻밤을 보내는 캠핑 프로그램은 많은 참여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관람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됐던 순천만습지에서 참여자들이 별을 바라보고 갈대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새벽에는 무진교와 갈대밭 사이의 운무를 바라보며 일출을 기다리기도 했다.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세계유산을 표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다. 순천의 유산을 예술가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유산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돋보였던 건 가족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세계유산 중



지난달 1일 순천만습지 무진교에서 열린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 슬로건 펼침 기념 행사에 참가한 방문객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집 만들기,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마술, 그림책 클래식, 유산놀이터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은 사전접수가 일찍 마감되고 현장에서도 참가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지속성을 위해 지난 25일에는 세계유산 포럼을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켜야 할 가치의 유산에서 향유와 활용의 대상으로 발전 방안과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산을 지키는 주민주체가 직접 만들어가는 축전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순천갯벌에서 살아가는 어촌계가 참여한 순천만 풍어제, 뱀배림픽은 유

산의 보존가치를 공감하고 화합하는 장이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유산 투어 완료자가 유산의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은 세계유산축전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축제라는 인식을 가져다 줬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 다채롭게 진행된 세계유산축전에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2025년에도 세계유산의 가치, 순천의 가치를 흠뻑 느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영농 활동과 복지·문화 향상 지원
고흥군 여성농업인센터

고흥군이 농촌인구 고령화와 영농 형태 다양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맞춰 여성농업인을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고흥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및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에 개설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복지·문화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과 자녀 방과 후 학습 지도 등을 통해 농번기에도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풀뿌리 동아리 지원사업, 재봉 교실, 다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일감 갖기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두원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 ‘꼬마 농부 학교’를 열어 텃밭 가꾸기 등 내 고장의 흙과 작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영농 개선 교육과 주말 아이 돌봄방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특히 ‘예쁜손모아’ 봉사단은 지난 8월 두원면 금오마을을 시작으로 도화면 발포마을 등 오지마을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류 재봉·수선과 공용 낫잠 베개를 제작·기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그 뜻을 더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차로이탈경보장치’ 무상 설치 장흥군, 고령운전자 차량 대상

장흥군은 어르신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보장치’를 35대 장착 지원했다 3일 밝혔다.

장흥군은 생계유지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지원했다.

차로이탈경보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및 추돌 등 보행자 추돌경보를 소리와 진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난달 30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다 함께! 더 힘차게! 함께 걸어요’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양시 제공

‘다 함께! 더 힘차게! 함께 걸어요’ 걷기 성황

광양시는 지난달 30일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다 함께! 더 힘차게! 함께 걸어요’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 행사는 건강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역주민 100여 명은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앞 광장에 모여 다 함께 몸풀기 체조로 굳은 몸을 풀 뒤 걷기 활동을 진행했다.

걷기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성황천 △성황공원 △공룡놀이터 △햇살문 △성황전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4km 코스로, 완주까지

약 60분 가량 소요됐다. 참가자들은 가을 바람이 선선한 성황공원을 걸으며 일상을 잊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걷기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가을바람을 느끼며 걸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활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정 도시보건과장은 “이번 걷기 행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숙박·음식업소 물가 안정 여수시, 전담팀 사전회의

여수시는 지난달 31일 지역 숙박·음식업소 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물가 안정 전담팀(TF)은 관광지 주변 숙박·음식업소의 계속된 바가지요금, 불친절 민원에 따른 대책으로 기획됐다.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가 협업해 분기마다 부서별 대책 추진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회의했다. 이날 전담팀(TF)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에서 최 부시장과 5개 부서장은 매일 실시되고 있는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을 활용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주제로 하는 친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낭만포차 등 숙박·음식업소 종사자 친절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피해 신고 접수 시 행정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공무원별 담당 음식점소를 지정해 직접 방문하여 개선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한국의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구례 3곳 선정

쌍산재·천개의 향나무 숲·반야원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

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 및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례 민간정원은 △300년 고택과 정원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쌍산재’ △1000그루의 향나무 길과 목서, 매화의 향기가 가득한 ‘천개의 향나무 숲’ △오래 세월을 품은 플라타너스와 소나무가 돋보이는 ‘반야원’이다.

세 정원은 각각 전통미와 예술적 감각,

색다른 매력으로 심사위원단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구례군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정원 문화를 전국에 알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의 민간정원들이 이번에도 모두 선정되고, 또한 지리산정원이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상호 발전 우호 교류 협약 보성군-美 미디어시

보성군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 광장에서 미국 미디어시(시장 밥 맥마흔)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밥 맥마흔 미디어시장, Dr. 모니카 테일러 델라웨어 카운티 의장, 서재필기념재단 최정수 회장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 출신의 서재필 박사과 미디어시에 있는 서재필기념재단 간의 깊은 역사·문화적 인연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문화유산을 연결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9월에서 서재필기념재단 관계자 100여 명이 보성을 방문해 서재필 생가, 서재필기념관, 보성차밭 등을 탐방하며 양 도시 간의 깊은 유대를 확인한 바 있다. 앞으로도 매년 재단 관계자들이 보성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호혜적 평등 원칙에 따라 관광, 문화·예술, 교육, 경제, 정원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필립 제이슨(서재필) 박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사업을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